
정책참고자료

2017-12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민·관 합동 위기관리 매뉴얼 작동실태 점검	—————	4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기업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 지원	—————	7
3	기획재정부		
	한·ASEAN FTA 발효('07.6.1.) 10주년 성과	—————	10
4	교육부		
	인구절벽시대, 학교 진화 방향을 모색하다	—————	19
5	미래창조과학부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 빅데이터가 도와준다	—————	21
6	문화체육관광부		
	2017 드림콘서트, 평창을 더하다	—————	26
7	농림축산식품부		
	스타벅스도 반했다, 우리 친환경 쌀의 무한 변신”	—————	28
8	환경부		
	멸종위기종, 폐광지역에 생명의 기운 불어넣는다	—————	33

9	고용노동부		
	장애인공단, 제6기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 「하모니」 모집	—————	35
10	여성가족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지속”	—————	38
	- 「2017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		
11	국토교통부		
	‘여성 1호’의 멘토링으로 길을 찾는 멘티가 되세요!	—————	40
12	해양수산부		
	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눈에 확 띄네”	—————	45

민·관 합동 위기관리 매뉴얼 작동실태 점검

-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기관별 매뉴얼 점검 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도래 및 휴가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주요 재난 >

- ▶ 강원 강릉·삼척 산불로 임야 57ha, 건물 39동 소실 등 재산피해 발생
- ▶ ○○ 조선소에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크레인이 붕괴되어 6명 사망
- ▶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좌판 244개, 점포 15개 소실 등 재산피해 발생

-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작성·운영하고 있는 풍수해, 가뭄 등 32개* 재난 및 사고유형에 대한 매뉴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 이 달 말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 '17년 5월 현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32종(자연재난 6종, 사회재난 26종)

-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매뉴얼에 대해 각종 재난대응 및 훈련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토록 유도해 왔으나,

- 매뉴얼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작성·운용 중인 매뉴얼에 대한 실태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그간 중앙부처 자체적으로 소관분야 매뉴얼에 대해 지도·관리해 오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민·관 합동으로 중앙

매뉴얼점검단*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중앙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구성

○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일선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작성·운영 중인 매뉴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철저히 검토 후 보완한다.

- 이어, 보완된 매뉴얼이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되는지를 훈련을 통해 검증하며, 이 과정이 선순환 체계*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점검·평가 → 문제점 도출 → 개선사항 매뉴얼 반영 → 훈련실시(검증)

○ 또한, 앞으로 매뉴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상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매뉴얼 점검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매뉴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비고
자연재난 (6)	① 풍수해	국민안전처	
	② 지진	국민안전처	
	③ 대형화산폭발	국민안전처	
	④ 적조	해양수산부	
	⑤ 가뭄	국민안전처/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⑥ 조수	해양수산부	
사회재난 (26)	① 산불	산림청	
	②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③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④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⑤ 공동구재난	국민안전처/국토부	
	⑥ 댐붕괴	국토부/산업부	
	⑦ 지하철대형사고	국토교통부	
	⑧ 고속철도대형사고	국토교통부	
	⑨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국민안전처	
	⑩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⑪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⑫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노동부	
	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⑭ 교정시설 재난 및 사고	법무부	
	⑮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⑯ 감염병	보건복지부	
	⑰ 정보통신	미래창조과학부	
	⑱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⑲ 원전안전	원안회/산업부	
	⑳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㉑ 원유수급	산업통상자원부	
	㉒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㉓ 식용수	환경부/국토부	
	㉔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㉕ GPS전파혼신	미래창조과학부	
	㉖ 우주전파재난	미래창조과학부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기업 윤리경영 전문가' 양성 지원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대응방안 등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부지원 교육과정이 매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일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에서 '기업윤리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을 첫 개설·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102개 기업의 윤리경영 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번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은 각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담당자를 통해 기업 내 윤리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개설된 정부지원 교육과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24개 기업이 참여한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해 공공 부문의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을 민간부문과 공유해 왔다.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은 이를 기업 윤리경영에 맞게 교육내용을 좀 더 현실화한 것으로, 공공 부문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기업의 윤리경영을 이끌 사내전문가를 양성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은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상 양벌규정 대응방안, 윤리경영 국내외 최신 트렌드 및 대응전략, 해외의 부패방지법 엿보기, 기업의 윤리경영 자가진단 모형소개 및 분석, 기업윤리

딜레마 상황과 해결방안 등을 교육내용으로 담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가 한층 성숙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기업윤리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일정 및 내용

○ 일시/장소 : 2017. 6. 2.(금), 09:30 / 사학연금 서울회관 세미나실(2층)

시 간		과 정 명	비 고
09:30-10:00	30분	• 등록 / 과정안내	
10:00-10:10	10분	• 인사말씀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10:10-11:00	50분	• (원포인트 레슨) 기업의 '청탁금지법 양벌규정' 대응방안 - '기업 반부패가이드' 중심으로 -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
11:00-11:10	10분	휴 식	
11:10-12:10	60분	• (동향소개) 윤리경영 국내외 최신 트렌드 및 대응전략	산업정책연구원 김재은 상임연구위원
12:10-13:10	60분	중 식	
13:10-14:00	50분	• (청렴콘서트) 모래알이 들려주는 이야기(샌드아트) 등	권익위 청렴연수원
14:00-14:10	10분	휴 식	
14:10-15:10	60분	• (특강) 해외의 부패방지법 엮보기(ISO37001, BS10500)	서강대 조창훈 특임교수
15:10-15:20	10분	휴 식	
15:20-16:20	60분	• (컨설팅) 기업의 윤리경영 자가진단 모형 소개 및 분석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정운용 소장
16:20-16:30	10분	휴 식	
16:30-17:30	60분	• (사례분석 및 발표) 기업윤리 딜레마 상황과 해결방안	서울대 교육연구소 장희선 객원연구원
17:30-17:50	20분	• 설문조사 / 수료증 수여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한·ASEAN FTA 발효('07.6.1.) 10주년 성과

- 양자간 투자, 교역의 지속 증가로 FTA win-win 효과 시현 -
- 경제협력 동반자로서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한·ASEAN FTA 업그레이드 필요 -

I 상품 성과

1. 교역 : 한·ASEAN FTA를 토대로 교역량 지속 확대

□ FTA 발효 후 한·ASEAN 교역(수출+수입)의 연평균 증가율(5.7%)은 對세계(2.4%) 보다 3.3p% 높은 수준임

* '16년 한·ASEAN 교역액(1,188억불)은 한국의 전체 교역액(9,016억불)의 13% 수준

** 한국의 ASEAN 국가별 교역 순위('16년): ①베트남(451억불) ②싱가폴(193억불) ③말레이시아(150억불) ④인도네시아(149억불) ⑤태국(110억불) 등

○ 對ASEAN 교역 비중도 '07년 9.9%에서 '16년 13.2%로 증가하여 ASEAN은 한국의 제2의 교역 지역임(제1교역국: 중국 2,114억불)

< 한·ASEAN 교역 추이 (단위: 억불, %, 무역협회)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감률 (07~'16)
對 ASEAN	618.1 (9.7)	718.6 (9.9)	902.0 (10.5)	750.3 (10.9)	972.9 (10.9)	1,249.2 (11.6)	1,311.2 (12.3)	1,353.4 (12.6)	1,380.0 (12.6)	1,198.6 (12.4)	1,188.4 (13.2)	5.7
對 세계	6,348.5	7,283.4	8,572.8	6,866.2	8,916.0	10,796.3	10,674.5	10,752.2	10,981.8	9,632.6	9,016.2	2.4

* ()안은 對세계 교역 중 ASEAN의 교역 비중

2. 수출 : ASEAN은 수출 증가율이 높은 중요 수출 지역

□ 對ASEAN 수출은 FTA 발효 후 연평균 7.5% 증가함

○ 이는 對세계 수출 증가율(3.3%) 보다 **4.2%p 높은 수준임**

* '07~'16년간 주요국 연평균 수출증감률: ①ASEAN(7.5%) ②중국(4.7%) ③미국(4.2%) ④일본(△0.9%) ⑤EU(△2.0%) 등

○ 對ASEAN 수출 비중도 '07년(10.4%) 이후 지속 증가하여, '16년에는 **15%** 수준으로 ASEAN은 한국의 제2의 수출 지역임

< 한·ASEAN 수출 추이 (단위: 억불, %, 무역협회)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감률 ('07~'16)
對 ASEAN	320.7	387.5	492.8	409.8	532.0	718.0	791.5	820.0	845.8	748.2	745.2	7.5
	(9.9)	(10.4)	(11.7)	(11.3)	(11.4)	(12.9)	(14.4)	(14.7)	(14.8)	(14.2)	(15.0)	
對 세계	3,254.7	3,714.9	4,220.1	3,635.3	4,663.8	5,552.1	5,478.7	5,596.3	5,726.7	5,267.6	4,954.3	3.3

* ()안은 對세계 수출 중 ASEAN의 수출 비중

□ '16년 ASEAN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 베트남·싱가폴·말레이시아 등 3개국에 대한 수출이 對ASEAN 수출의 **70.6%**를 차지함

* ASEAN 개별국 수출 비중: ①베트남(43.8%, 327억불) ②싱가폴(16.7%, 125억불) ③말레이시아(10.1%, 75억불) ④필리핀(9.8%, 73억불) ⑤인니(8.9%, 66억불)

□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석유제품·무선통신 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FTA 발효 후 무선통신·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급증함

* 주요 수출품 변동('07→'16년 백만불, 연평균 증감률): ①반도체(7,381→11,705, 5.3%) ②석유제품(5,100→7,179, 3.9%) ③무선통신(1,501→5,633, 15.8%) ④선박해양(3,414→4,197, 2.3%) ⑤평판디스플레이(554→2,924, 20.3%) 등

□ ASEAN 시장 점유율을 보면 FTA 발효 후 10년간 일본, EU, 미국은 지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속 증가함

* 주요국별 ASEAN 시장 점유율 추이('07→'16년): 한국(5.0→7.0%), 중국(12.5→19.9%), 미국(9.7→7.5%), 일본(11.9→9.5%), EU(10.7→9.4%)

3. 수입 : 對ASEAN 수입도 지속 증가, 중요 경제협력 지역으로 부각

□ 對ASEAN 수입은 10년간 증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3.3% 증가함

○ 이는 세계 수입 증가율(1.4%) 보다 1.9%p 높은 수준임

○ 對ASEAN 수입 비중도 '07년 9.3%에서 '16년 10.9%로 증가하여, 한국의 주요 수입 지역으로서 ASEAN의 중요성도 커짐

< 한·ASEAN 수입 추이 (단위: 억불, %, 무역협회)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감률 ('07~'16)
對 ASEAN	297.4	331.1	409.2	340.5	441.0	531.2	519.8	533.4	534.2	450.3	443.2	3.3
	(9.6)	(9.3)	(9.4)	(10.5)	(10.4)	(10.1)	(10.0)	(10.3)	(10.2)	(10.3)	(10.9)	
對 세계	3,093.8	3,568.5	4,352.8	3,230.9	4,252.1	5,244.1	5,195.8	5,155.9	5,255.2	4,365.0	4,061.9	1.4

* ()안은 對세계 수입 중 ASEAN의 수입 비중

□ '16년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면,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폴로부터의 수입이 對ASEAN 수입의 79.2%를 차지함

* ASEAN 개별국 수입 비중: ①베트남(28.2%, 125억불) ②인니(18.7%, 83억불) ③말레이시아(16.9%, 75억불) ④싱가폴(15.4%, 68억불) ⑤태국(10.3%, 46억불) 등

□ 수입 품목을 보면 반도체·무선통신기기·의류 등이 주요 품목이며, FTA 발효 후 무선통신기기·의류 등의 수입이 증가함

* 주요 수입품 변동('07→'16년 백만불, 연평균 증감률): ①반도체(7,583→4,819, △4.9%) ②무선통신기기(416→4,007, 28.6%) ③의류(192→3,664, 38.8%) ④천연가스(4,645→3,324, △3.6%) ⑤석유제품(1,508→1,923, 2.7%) 등

□ ASEAN의 한국 시장 점유율('16년, 10.9%)도 FTA 발효 후 지속 상승

* ASEAN의 한국 시장 점유율: ('06) 9.3% ('12) 10.0% ('15) 10.3% ('16) 10.9%

4. 무역수지 : FTA 발효 후 흑자 지속

□ 對ASEAN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후 연평균 20.5% 증가하여 '16년에는 302억불 수준임

- 이 중 베트남 흑자가 큰 비중('16년, 66.7%)을 차지하는데 이는 ASEAN 중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16년, 46.7%)가 가장 큰데 기인함

< 한·ASEAN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불, %, 무역협회)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감률 ('07~'16)
對 ASEAN	23.2	56.4	83.7	69.3	91.0	186.8	271.7	286.6	311.6	297.9	302.0	20.5
對 베트남	30.0 (129.3)	43.7 (77.5)	57.7 (68.9)	47.8 (69.0)	63.2 (69.5)	83.8 (44.9)	102.3 (37.7)	139.1 (48.5)	143.6 (46.1)	179.7 (60.3)	201.4 (66.7)	18.5

* ()안은 對ASEAN 무역수지 중 베트남의 무역수지 비중

II 서비스 교역 성과

- [서비스 교역] 경제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으로 연평균 6.6% 증가하여, '15년 對ASEAN 서비스 교역의 규모는 429.9억불 달성

* '07~'16년간 주요국 서비스 교역의 연평균 증감률: ①중국(8.3%) ②ASEAN(6.6%) ③EU(2.7%) ④미국(1.3%) ⑤일본(△0.8%) 등

- 對세계 서비스 교역 중 ASEAN의 비중도 '15년 20.4% 수준으로 한국의 주요 서비스 교역 지역으로서 ASEAN의 중요성이 높아졌음

< 한·ASEAN 서비스 교역 추이 (단위: 억불, %) >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감률 ('07~'15)
對 ASEAN	201.3 (15.8)	257.0 (16.4)	328.2 (17.3)	237.1 (15.3)	299.7 (16.6)	341.9 (17.6)	375.6 (17.7)	392.1 (18.3)	438.0 (19.2)	429.9 (20.4)	6.6
對세계	1276.4	1565.5	1892.1	1550.9	1807.6	1940.8	2122.8	2139.8	2278.9	2103.8	3.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안은 對세계 서비스 교역 중 ASEAN의 서비스 교역 비중

- [서비스 수출] '07년 이후 연평균 7.2% 증가하여, '15년 서비스 수출 규모는 219.1억불 수준임

- '15년도 주요 서비스 수출 부문은 운송서비스(35.6%)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기타사업(18.3%), 여행(10.0%), 지적재산권(8.8%) 순임

* 기타사업서비스: 인력파견, 경비 및 탐정, 통·번역, 청소,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등

- 특히, '07년 이후 지식재산권사용료,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부문은 각각 연평균 증가율이 24.3%, 34.8%로 급증함

□ **[서비스 수입]** '07년 이후 연평균 6.1% 증가하여, '15년 서비스 수입 규모는 210.8억불 수준임

○ '15년도 주요 서비스 수입 부문은 운송서비스(30.7%)의 비중이 가장 높고, 여행(27.7%), 기타사업(20.0%), 가공서비스(10.7%) 순임

- 서비스 수출과 유사하게 통신·컴퓨터·정보, 지식재산권사용료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9.3%, 16.1% 증가했으나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 '15년 수입액 및 비중: 통신·컴퓨터·정보(8.9억불, 4.2%), 지식재산권(3억불, 1.4%)

□ **[서비스 수지]** '12년 이후 흑자 추세이며, '15년 8.4억불 수준임

* 서비스 수지(억불): ('06) △3.6 ('07) △6.2 ('08) 13.2 ('09) 6.7 ('10) △6.3 ('11) △0.5 ('12) 18.0 ('13) 10.7 ('14) 14.1 ('15) 8.4

III 투자 성과

□ **[對ASEAN 투자]** 지난 10년간('07~'16년) 對ASEAN 투자는 연평균 60억불로 발효 전 10년간('97~'06년) 연평균(11억불) 대비 5.4배 증가함

○ 對ASEAN 투자의 대부분은 베트남으로 최근 5년간 對ASEAN 투자의 38.6%를 차지함

* '16년 한국의 對ASEAN 국가별 투자 순위(금액): ①베트남(30.0억불) ②싱가폴(14.1억불) ③인도네시아(7.1억불) ④캄보디아(4.0억불) ⑤미얀마(3.3억불) 등

** 업종별로는 '16년 신고금액기준 ①제조업(27.5억불) ②금융·보험업(10.3억불) ③도·소매업(6.1억불) ④광업(4.4억불) ⑤부동산·임대업(3.9억불) 순

*** 베트남(삼성전자, LG전자), 인도네시아(포스코, 한국타이어), 싱가포르(SK그룹), 말레이시아(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미얀마(포스코강관, 롯데칠성음료) 등

< 한국의 對ASEAN 투자 추이 (단위: 백만불, 연평균) >

구분	'97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對ASEAN	1,126	3,656	6,595	6,904	6,339	7,195	6,390	4,635	4,625	5,054	6,589	6,404

* 자료: 수출입은행(신고금액기준)

□ **[투자유치]** 지난 10년간('07~'16년) 對한국 투자는 연평균 14억불로 발효 전 10년간('97~'06년) 연평균(10억불) 대비 1.4배 증가함

○ ASEAN의 對한국 투자의 대부분은 싱가포르로 최근 5년간 對한국 투자의 89.2% 차지(싱가폴은 한국의 제3위 투자국)

*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 제조업이 '16년 각각 88.1%, 11.9% 차지

< ASEAN의 對한국 투자 추이 (단위: 백만불, 연평균) >

구분	'97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對韓	772	703	595	985	575	1,635	741	1,682	616	1,786	2,852	2,457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신고금액기준)

IV 주요 성과의 의미

1. 한국측 성과

□ 한·ASEAN의 상품·서비스 교역 증가는 경제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음

○ 지난 10년 동안 ASEAN은 한국의 제5위 상품 교역 지역에서 제2위 교역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현재 중·미의 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ASEAN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주요국별 교역 비중('06→'16년, %): ①중국(18.6→23.5) ②ASEAN(9.7→13.2) ③미국(12.1→12.2) ④EU(12.4→10.9) ⑤일본(12.4→8.0)

□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던 對ASEAN 수출 품목이 무선통신기기·평판디스플레이·기구부품 등으로 다양화됨

* 한국의 對ASEAN 주요 수출 품목의 비중 추이('07→'16년, %): 반도체(19.0→15.7), 무선통신기기(3.9→7.6), 평판디스플레이(1.4→3.9), 기구부품(1.3→2.9)

○ 이는 한국의 대기업이 ASEAN에 현지공장 구축을 위한 투자를 증대하면서, 무선통신기기·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중간재 수출 등이 증가했기 때문임

* '07~'16년간 한국의 對ASEAN 주요 수출품 연평균 증가율: 무선통신기기(15.8%), 평판디스플레이(20.3%), 기구부품(17.5%)

□ ASEAN 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 비중인 시장 점유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의 ASEAN 시장 점유율과의 격차 감소('07년 격차 6.9%p → '16년 2.5%p)

○ 이는 ASEAN의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 증가 등을 반영한 것으로 ASEAN 시장이 성장할 경우 한국의 수출에 더욱 긍정적임

□ 한국의 ASEAN에 대한 투자는 '07년 이후 급증하였음

○ 이는 한·ASEAN FTA 체결, 한국 기업의 ASEAN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시설 투자 등이 증가함에 기인함

* 현지시장 및 제3국 진출 목적 투자액 비중 변동(신고기준): ('97) 7.1% → ('06) 21.0% → ('07) 50.5% → ('11) 43.1% → ('16) 62.3%

○ 이러한 현지 진출 기업의 증가는 한국의 중간재 수출 증가,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2. ASEAN측 성과

□ 한·ASEAN FTA 체결 이후 한국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ASEAN의 對세계 수출 증가에 기여함

* ASEAN의 對세계 수출은 '07년 이후 연평균 3.3% 증가('16년 11,492.1억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 한국의 對ASEAN 직접투자와 ASEAN의 對세

계 수출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존재

- 또한, 한국의 제조업 투자 증가는 ASEAN의 산업구조를 노동 집약에서 자본집약산업으로 고도화*하는데 기여함

* '16년 제조업 투자액은 2,895백만불로 '08년, '09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세 유지

** 화학공업제품·기계류 등 자본집약적 산업의 ASEAN 수출 비중은 증가(화학공업제품 '06년 10.5%→'16년 12.1%, 기계류 28.3→30.8%)하고, 섬유류(4.1→2.8%)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 비중은 감소

- ASEAN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Global Supply Chain에 참여함에 따라 자국의 수출 품목 다양화 및 수출 증가 등의 성과를 이룸

3. 인적교류 측면의 성과

- 관광 등 양국간 인적교류는 한·ASEAN FTA 발효와 더불어 산업 인력 연수 등을 통해 ASEAN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

* 對ASEAN 방문객(만명): ('07) 331→('16) 553('12년 이후 전체 출국자의 25% 이상)

** 對한국 방문객(만명): ('07) 76→('16) 222(해외 방문객의 12.9%)

*** 국내 거주 ASEAN인(만명): ('07) 18→('16) 31('17.3년 현재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27.5%)

V 향후 과제

- 낮은 개방수준 및 더딘 관세인하 스케줄을 개선하는 FTA 업그레이드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FTA 효과 극대화 추진

* 既발효 협정의 자유화율: 한·ASEAN(90%), 한·EU(100%), 한·미(100%)

** '16년 한·ASEAN FTA 수출 활용률은 46.0%로 既발효 전체(72.2%) 대비 낮은 수준

- 특히, '15년도 AEC* 출범 이후 양자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ASEAN FTA도 이에 맞춰 개선할 필요

* AEC: ASEAN Economic Community(아세안경제공동체)

- ASEAN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한·ASEAN FTA의 성과를 축소시키므로 이에 대한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 노력과

FTA 개선시 경제협력 협정의 구체화 등이 필요함

* 對한국 TBT 통보문 건수('08→'16년): (인도네시아) 7건 → 17건, (베트남) 4건 → 30건

인구절벽시대, 학교 진화 방향을 모색하다

교육부, 2017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행복교육 현장토론회 개최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7개 교육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오는 5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교육개발원 대강당에서 ‘인구절벽시대의 학교 진화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17년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 지난 4월 13일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평가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원진로교육원에서 개최한 제1회 현장토론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 ※ 1회 토론회 참석자 :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 등 250여 명(강원·경기교육청 교원 등)
-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 충북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김한별 한국교원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충북 제천 덕산초등학교 고흥섭 교사와 세종교육청 김응현 장학사의 현장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 김한별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 현재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의 ‘위기적 측면’만 주목하는 관점에서 ‘기회의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기 학생 수의 감소를 오히려 교육경험의 질적 수준을 심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또한, 학교 통폐합이라는 ‘양적 조정’ 보다 지역의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교육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질적 조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친밀감을 바탕으로 학생의 떠남을 막아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는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은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고 있다.

□ 교육부 박준성 기획담당관은 “이번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 관계기관 관계자,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선학교 교원, 교육계 종사자, 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며,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6월 27일(화)에는 “학교 자율 운영 방안”을 주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3회 행복교육 현장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 향후 계획 : 9월(광주교육청), 10월(울산교육청), 11월(부산교육청)

* 토론주제는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예정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 빅데이터가 도와준다

- 미래부,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12개 과제 선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의 활용·확산을 위하여 '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각종 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빅데이터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전파하는 사업이다.
 - 그동안 미래부는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로밍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조기 대응,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분석으로 소비동향 조기 파악,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심야버스 노선 수립 지원 등 빅데이터의 활용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 올해는 과제 개발 단계에 따라 기획·검증, 실증·확산으로 구분하여 접수하였으며, 총 42개 과제 중 12개(총 39억 원 규모, 민간 매칭 별도)를 최종 선정하였다.
 - ※ 기획·검증 단계 5개, 실증·확산 단계 7개 / 경쟁률 3.5:1
- 6월 9일(금) 오후 3시부터 개최될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선정된 12개 컨소시엄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빅데이터 플래그십 과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부터 축적한 약 4천만 건의 사업장 데이터와 8억 건의 가입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교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미취업 청년·장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구직을 지원한다.
 - 예를 들어 종전에는 개인이 확인하기 힘들었던 각 사업장의 소득분포, 근로자 평균연령, 육아휴직 비율 및 비정규직 비율 등의 자세한

기업 정보를 누구나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자체 보유 1억 2천만 건의 전기안전점검데이터와 국토부(건축물 대장)·안전처(전기화재현황)·기상청(기상자료)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상관관계 분석 등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전기재해 예방·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향후 대국민 플랫폼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배관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자동 측정·수집되는 압력·온도·가스성분 등의 상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스 누출·배관파손 위험에 대한 사전예측과 이에 대한 대응 기술을 개발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한다.
 - 스타트업인 케이앤컴퍼니는 신한은행과 함께 1천여 종의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에는 산정이 어려웠던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동산 허위 거래 예방과 시세를 활용한 서민 금융지원 서비스 범위 확대를 기대한다.
 - 이외, **인간·동물감염병 확산 대응(KT)**, **의료정보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공간 빅데이터 기반 도시 양극화 분석 시스템** 구축(국토연구원) 등 **공공·민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빅데이터 플래그십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빅데이터 플래그십 과제들이 빅데이터 활용 혁신사례를 제시하여 그 결과가 민간·공공 등 각 사회 분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착수보고회 계획(안).
2.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제 목록. 끝.

□ 개 요

-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 공감형 빅데이터 과제 수행을 위한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착수 보고회 개최
 ※ 기획검증 분야 5개 과제, 실증확산 분야 7개 과제 수행

□ 주요내용

- 일시 : 2017. 6. 9(금) 15:00 ~ 18:00
- 장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중구 무교동) 1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약 30명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제별 책임자 및 관계자
- 내용
 -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과제별 주요 목표 공유 및 성과 창출방안 논의 등

□ 상세일정

시간	내용	비고
15:00~15:10(10분)	장내정리, 인사말씀	NIA, 미래부
15:10~16:40(90분)	빅데이터 플래그십(실증·확산) 발표	7개 과제당 약 10분 발표 및 토의
16:40~16:50(10분)	휴식	
16:50~18:00(70분)	빅데이터 플래그십(기획·검증) 발표	5개 과제당 약 10분 발표 및 토의

□ **기획·검증 선정 과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전략 수립 및 정책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 시범 서비스 개발·지원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서비스 기획, 시범분석을 통한 분석모델 검증, 본 서비스로서의 확산 가능성 확인을 위한 사업 지원

컨소시움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 /크레딧데이터 (고용)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취약계층 일자리 찾기 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 내부(가입자 및 사업장 정보) 및 외부(채용공고 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용·실업 현황, 사업장 채용 현황, 소득대비 주거비용 등 일자리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각 취약 계층별 특성(청년/장년/경력단절여성 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보서비스 제공 ○ 구직 전략(장기 근속 희망/거주지 주면/근무 등)에 맞는 일자리 찾기 지표 및 분석현황 개발
선도소프트 /전기안전공사 (재난)	전기재해 빅데이터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 개발 및 예방·예측 pilot플랫폼 구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공사가 보유한 전기안전 정보와 외부자료(전기화재 현황 등)를 연계한 융합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기재해 현황 분석 및 예측 플랫폼 구축 ○ 유형별 전기안전사고 가능 지역 추출 및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
한국에너지 공단 /에스코프로 (에너지)	공공데이터 기반 건물에너지성능 기초진단 플랫폼 구축 및 실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전력사용량과 실시간 에너지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2,000㎡ 이상의 업무·상업·교육용 건물(243개 지자체 약 900여동) 대상 에너지 사용량 분석 플랫폼 구축 ○ 에너지 소비 통계 및 성능하위 건물 대상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정책 지원
국토연구원/ 코리아크레 딧뷰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금융 빅데이터와 행위자 기반 모형을 결합한 도시 양극화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도시 내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 ○ 데이터 기반 도시 양극화 분석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시스템 구축(부산광역시 대상)
신한카드 /엔코아 (경제)	데이터 기반 대내외 경제기회·충격 선제 대응체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책 지원) 신용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통계 고도화(현행 GDP 산출방식 개선, 선행지표 발굴 등) ○ (수출정책 지원) 수출시장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한 수출 결정모형 수립 및 수출 전망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실증·확산 선정 과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 현안해결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 시범 서비스 개발·지원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서비스 개발·적용 및 전국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컨소시움 (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엔텔스/ 교통공단 (교통)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사고 위험예측 실증 서비스	○ 교통사고데이터 및 각종 내·외부 데이터(교통 소통·제보 데이터, 기상데이터 등의 연계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 지수 예측모형 개발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의료정보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의료정보와 외부자료(감염병 감시 정보 등을 연계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염병 등 주요 질병, 의약품오남용, 의료기기 사용 현황 등의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감염병 감지·예측 기법 고도화로 감염병 감시체계 지원
케이티/ 질병관리본부/ 검역본부 (재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대응 지원 체계 구축	○ (동물감염병) 비정형 분석을 통해 농장 방문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존 차량 이동 데이터와 융합한 동물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 개발 ○ (인간감염병)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통신·카드사용 이력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자 동선 추적 모델 개발
아란타 (재난)	빅데이터 기반 소(牛)집단 의료 인공지능 학습형 예방·진단 대응 시스템	○ 소(牛) 집단에서 생성되는 바이오 데이터(맥박, 체온 등을 수집하여 축산업체에 질병에 대한 예방·예측 정보를 72시간 전 사전 통보할 수 있는 학습형 예방·진단 시스템 구축
케이앤 컴퍼니/ 신 한은행 (금융)	빅데이터 활용 소형 공동주택 시세 산정 서비스	○ 부처 및 지자체 40여개 홈페이지에서 개방한 민간·공공 데이터(건축물대장,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등)를 활용하여 연립·다세대 시세산정 서비스 개발 ○ 연립·다세대 거주자와 거래자의 중개편의 및 금융 서비스의 제공
메타라이츠/ 가스안전공 사 (도시안전)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가스 배관 위험 예측 관리 실증 서비스	○ 가스 배관에 부착된 IoT센서로부터 측정되는 상태 데이터 (압력, 온도, 가스성분 등)를 자동 수집·분석하여 배관의 누출·파손 등 위험에 대한 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제주도/ 카카 오 (서비스)	지역 거점형 민·관 빅데이터 융합 플랫폼 서비스	○ 제주도의 공공데이터와 카카오의 소셜 데이터(택시, 네비, 지도 등)를 연계하여 스타트업, 소상공인, 관광,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2017 드림콘서트, 평창을 더하다

- 6. 3. 서울월드컵경기장, 드림콘서트와 평창올림픽의 만남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팝(K-Pop) 가수들의 축제인 '2017 드림콘서트'가 오는 6월 3일(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주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김영진)

올해 23주년을 맞이한 드림콘서트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평창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랑한다 대한민국 2017 드림콘서트, 2018 평창 문화를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함께 기원하는 무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문화올림픽이란? (IOC, 「Cultural Olympiad Guide」)

올림픽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올림픽 가치를 통해 개최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통칭한다.

지난 1994년,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국내 가요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가요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시작된 드림콘서트는 23년 동안 청소년들을 비롯한 전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해외 케이팝 팬들에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콘서트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올해는 '2018 평창 문화를 더하다'라는 부제 아래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홍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문화와 스포츠의 동반상승 효과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케이팝 콘서트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함께

올림픽의 성공과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할 다양한 홍보 행사들이 드림콘서트와 연계돼 진행된다.

먼저, 에스비에스(SBS)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사랑한다 대한민국 2017 드림콘서트'가 방영(6. 14. 밤 11시 10분 예정)되고, 행사 포스터와 각종 홍보물에는 '2018 평창, 문화를 더하다'라는 부제가 함께 포함된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는 ▲식전에는 마스코트 인형과 함께 포토월을 운영하고, ▲공연 입장·대기 시간에는 대회 콘셉트 영상, 마스코트·종목 소개 영상 등을 상영한다. 아울러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응원송, 영화 <국가대표> 삽입음악인 '버터플라이' 떼창 마무리 공연 등, 특별한 공연을 진행한다.

한편, 평창 조직위와 강원도는 월드컵경기장 광장 서편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가상현실(VR) 체험, ▲컬링 체험, ▲컬러조각상 공연(퍼포먼스), ▲마스코트와의 사진 촬영 행사 등을 운영한다.

엑소(EXO), 트와이스(TWICE), 세븐틴 등 화려한 무대 펼쳐

이번 드림콘서트에서는 슈퍼주니어 이특, 세븐틴의 에스콕스, 배우 이선빈의 진행으로, 엑소(EXO), 태민(샤이니), 트와이스(TWICE), 세븐틴, 레드벨벳, 엔시티(NCT) 127, 엔시티 드림(NCT DREAM), 빅스(VIXX), 오마이걸 등 총 27개 팀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터보의 스페셜 컴백 무대도 이어진다.

한편,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공연 실황이 생중계되며 관련 채널과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dreamconcert.kr)과 페이스북(facebook.com/1995dreamconce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타벅스도 반했다, 우리 친환경 쌀의 무한 변신”

- 6월, 이달의 6차산업인(人), 미듬영농조합법인 전대경 대표 -

《이달의 6차산업인 주요내용》

◇ (선정결과) 경기도 “미듬영농조합법인 전대경 대표”

- (6차산업 내용) 경기도 평택시에서 친환경 쌀 계약재배단지과 가공용 쌀 생산단지 조성(1차) 쌀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2차) 쌀 가공품 체험 운영 및 스타벅스 등 유통채널 다변화(3차)
- (혁신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해 대형마트, 스타벅스 등에 유통·수출하는 등 다양한 유통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자체 브랜드 개발을 통해 6차산업의 성공을 이끌어냄

◇ 전대경 대표의 6차산업 성공전략

- 하나, 친환경 쌀 계약재배 및 가공용 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쌀 소비 촉진과 상생협력 주도
- 둘, 인증·특허를 통해 생산된 질 높은 농산물 가공품으로 까다로운 소비자의 욕구 충족
- 셋, 자체 브랜드 개발과 대형마트, 스타벅스 등 다양한 유통채널 구축을 통한 차별화 된 마케팅 및 홍보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의 6차산업인으로 경기 평택 소재의 미듬영농조합법인 전대경 대표(만45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에서는 농업 분야의 생산(1차), 가공(2차) 및 유통·체험·

관광 등 서비스(3차)를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 우수 경영체를 “이달의 6차산업인(人)”으로 선정,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 전대경 대표의 미듬영농조합법인은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연간 600여 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은 **인증과 특허를 보유한 우수한 가공품** 생산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가공된다.

○ 이렇게 생산된 가공품은 지역 내 쌀 소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와 대형마트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6차산업을 통한 경영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 [6차산업 추진 내용] 친환경 쌀 계약재배 및 가공용 쌀 생산단지 조성 + 생산된 쌀의 가공품 생산 + 쌀 가공품 체험 및 유통

** [주요 성과] (매출액) '15년 : 2,959백만원 → '16년 : 4,565백만원

(일자리) '15년 : 25명 → '16년 : 30명

□ 쌀농사를 3대째 이어온 전대경 대표는 쌀농사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공식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여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마침 신메뉴를 찾고 있던 스타벅스에 쌀로 만든 찹케이크를 제안했고, 케이크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상자에 함께 넣어 보낸 쌀과자가 의외로 주목을 받게 됐다. 전대경 대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를 **고급화해 '라이스칩'**이라는 이름을 붙여 **평택 특산물 배를 이용한 과일잼**을 함께 넣어 납품했다.

○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스타벅스에 납품한 쌀 과자류 제품은 3년 만에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했고, 제품은 에너지바 형태의 '라이스바', 과일을 말린 '리얼후르츠' 시리즈 등으로 확대됐다. 2015년에는 옥수수, 고구마, 감자로 구성하여 쉽고 간편

하게 즐길 수 있는 '옥고감'이 스타벅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현재는 총 8개 품목을 스타벅스에 납품한다.

- 전 대표는 스타벅스와 커피찌꺼기를 비료로 활용하는 상생협력 협약도 체결했다.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커피찌꺼기로 만든 퇴비를 지역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농업인은 친환경 비료를 활용해 생산한 안전한 농식품을 다시 스타벅스에 공급한다. 이 선순환구조의 상생협력 구조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서 벤치마킹하는 한편 국내 상생협력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전대경 대표는 스타벅스 외에도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및 어린이 전문 과자 매장과,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까지 제품을 납품하는 등 유통 채널을 다양하게 발굴해 수익을 창출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 전대경 대표는 지역 농산물의 특색을 살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판매처를 발굴해 샘플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그 결과 대형 마트뿐 아니라 어린이 전문 매장인 '베베쿱' 등 신규 유통처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 또한 '라이스바'와 '라이스칩'은 중량, 식감, 포장 디자인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어 2012년부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으로 제공되며 대한민국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세계인에게 알리고 있다.

- 이밖에도 전대경 대표의 미듬영농조합법인은 성장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 이미지를 살린 자체 브랜드 '논지기 (논을 지키는 사람들)' 구축을 위해 기업 내 디자인팀을 두고 고객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구성하는 한편, 제품의 다각화를 위해 쌀을 이용한 제과와 제빵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과·제빵·체험시설을 확충 중이다. 또, 자체 과일건조기계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 도전하며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 전대경 대표는 “진정한 농촌의 성장은 농업인들이 직접 나서서 농산물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제품을 다각화할지 고민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하고, 고품질의 국산 농식품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김 철 과장은 “다양한 먹거리로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미듬영농조합법인은 지속적인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혁신적인 부가가치 창출 사례를 보여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미듬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우수한 6차산업 사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달의 6차산업인 선정 소감을 밝혔다.

□ **일반현황**

- 업체명 : 미듬영농조합법인 * 법인설립 : 2005.03.15.
- 대표자 : 전대경 (031-681-2791)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232-1
- 인증보유 : ISO 22000, 유기농산물인증, 유기가공인증, 곡물
과자 제조방법 등 특허 2종

- **추진사업** : 친환경 쌀 계약재배 및 가공용쌀 생산단지 조성(1차),
쌀 및 과채 가공품 생산(2차),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
로컬푸드 가공 체험(3차)

제품 1	제품 2	체험 및 교육장
		
스타벅스 라이스칩(80g)	스타벅스 라이스바(35g)	쌀 가공품 체험 교육

□ **주요성과**

구 분	2015	2016	비 고
매출액	30억	50억	
인자리 창출	25명	30명	
방문객(체험)	8,500명	11,200명	
지역원료 구매	13억원	15억원	
계약재배 농가수	160개소	174개소	

멸종위기종, 폐광지역에 생명의 기운 불어넣는다

◇ 원주지방환경청, 6월 9일 정선 폐광지역 일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열목어 500마리와 붉은점모시나비 30쌍 방사

□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6월 9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열목어 500마리와 붉은점모시나비 30쌍을 강원도 정선군 백운산 물한리 계곡과 주변 지역인 하이원리조트 마운틴탑 일대에 각각 방사한다고 밝혔다.

○ 방사되는 열목어는 강원대 어류연구센터에서, 붉은점모시나비는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에서 각각 인공증식한 개체다.

□ 이번 멸종위기종 방사 지역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2015년부터 열목어와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복원사업을 추진한 곳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매년 인공증식한 열목어 500~1,000마리와 붉은점모시나비 20여 쌍을 방사해 왔다.

○ 방사 지역인 물한리 계곡은 과거 열목어 집단서식지였던 곳이나 2000년 초반 태풍피해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급감했다.

○ 하이원리조트 마운틴탑 일대는 붉은점모시나비의 과거 서식지는 아니나, 애벌레 먹이식물인 기린초가 자라는 등 서식환경이 적합해 복원을 추진한 곳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2년에 걸친 방사 결과, 올해 4월 물한리 계곡에서 열목어 124마리가, 하이원리조트 일대에서는 붉은점모시나비 애벌레 4마리가 각각 발견됐다고 밝혔다.

○ 붉은점모시나비 애벌레가 확인된 점은 그간 방사한 성충이 현지에서

알을 낳고 부화했다는 의미며, 서식지 복원의 청신호로 보고 있다.

- 열목어의 경우도 복원전인 2014년에 25마리가 발견됐으나 올해는 124마리가 발견되어 방사한 개체가 서식지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이번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2014년에 이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을 조사한 결과, 열목어와 붉은점모시나비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고 있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선군, (주)강원랜드, (사)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강원대 어류연구센터와 함께 2015년 6월 협약을 체결하여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열목어 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최재석 강원대 교수는 “이 지역에서 열목어가 먹이활동 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잘 정착하고 있다”며, “열목어 서식지 복원을 통해 이 지역이 탄광하천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청정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정선 폐광 지역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도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공단, 제6기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 「하모니」 모집

6월 21일(수)까지 접수...팀 단위(5명 이내)로 신청 가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아이디어, 열정이 넘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 ‘하모니(Harmony)’ 제6기를 모집한다.

*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 ‘하모니’란?

☞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음이 어울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하모니’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 ‘하모니’에 선정되면 오는 12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증명서를 발급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팀 단위(5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통해 10개 팀(50명 내외)을 선발한다.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 모집은 6월 21일까지 진행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nykim@kead.or.kr) 또는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된다. 문의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창출부(☎ 031-728-7142)

- 붙임 1. 모집 안내사진 1부
2. 모집 안내문 1부

제6기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 모집 안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 하모니(Harmony)'

□ 모집 및 선발

- 모집기간: 2017년 5월 31일(수) ~ 6월 21일(수)
- 지원자격: 대국민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심 있는 국내 대학 재(휴)학 중인자로
팀(5명 이내)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한자(전공 무관)
 -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활동이 가능한 자(공단 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카페, 블로그, SNS 등을 운영하고, 멀티미디어 자료 편집이 가능한 자 우대
- 모집인원: 팀 단위(5명 이내) 신청, 10개팀 총 50명 모집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 접수처: 이메일 nykim@kead.or.kr(고용창출부 ☎ 031-728-7142),
공단 본부 및 학교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전국 18개)
 - ※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공단 조직 안내 참고
- 선발결과: 2017년 6월 23일 예정(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활동기간: 2017년 6월 29일 ~ 12월 29일**

□ **활동내용: 온·오프라인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고용 우수사례 취재 및 SNS, 기획기사 작성 등을 활용한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등 공단 행사 및 사업 체험,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

□ **활동 혜택**

- 활동 종료 후 활동증명서 발급(전원)
- 소속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위촉장 및 명함 발급, 단체 티셔츠, 활동 홍보물품 제공
- 공단 본부 및 지사의 각종 행사 참여시 수업 및 실습에 참여중인 학생에 대한 **참석 협조 공문 및 참가여비(교통비 등) 지급**
- 미션 평가에 따른 우수 서포터스 팀 시상(포상금 총 400만원)
- 서포터스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램** 제공

□ **문의처**

- 공단 본부 고용창출부 김내영 대리(☎ 031-728-7142)
- 이메일 : nykim@kead.or.kr

‘여성 1호’의 멘토링으로 길을 찾는 멘티가 되세요

- 『청년여성 멘토링』 대표멘토단 결성 및 멘티 모집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7년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올해의 대표멘토로 사회 각 분야 여성지도자 20명을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향후 6개월간 상담과 지도를 받을 청년여성 멘티 300명을 모집한다.
 - ※ 모집기간 : 6. 7.(수)~ 7. 7.(금) 한 달간
 - ‘청년여성 멘토링’은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젊은 여성들에게 경력개발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실질적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 2002년~2016년 동안 멘토-멘티 1만 53쌍 연계
- 올해 대표멘토는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깬 ‘여성 1호’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청년여성들에게 길을 안내한다.
 - 여성 최초 국립대 병원장을 역임한 김봉옥 충남대 교수, 한국은행 여성임원 1호 서영경 고려대 교수, 금융업계 최초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손병옥 前푸르덴셜생명 회장, 현대중공업그룹 첫 여성임원인 이진철 상무보, 한국전력공사의 최초 여성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이경숙 실장 등이 참여한다.
 - 이밖에도 소셜벤처 ‘걸스로봇’의 이진주 대표,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 원장, 윤영미 KBS아나운서 등이 활동한다.
- 대표멘토 1인당 멘티 15여 명이 연결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 ▲ 멘토 소속기관 현장방문 ▲ 직무체험 ▲ 멘토와 함께하는 경력개발 목표 설계 ▲ 각종 공모전 참여 등 맞춤형 상담과 지도가 진행된다.
- 멘티에는 대학(원)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경력개발이나 진로설계에 고민이 있는 대한민국 청년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 지원자 가운데 희망하는 멘토, 지원자의 적극적 참여의지 등을 고려해 총 300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 ‘2017년 청년여성 멘토링’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여성은 여성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kwla.kigepe.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메일(c_mentoring@kigepe.or.kr)로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은 올해부터 그룹 멘토링 외에, 지역별 ‘멘토링의 날’을 신설해 비수도권지역 청년여성들을 위해 찾아가는 멘토링도 실시한다.

<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2017년 달라지는 내용 >

- ▶ Two-Track 멘토링 운영(멘티 1000명)
 - 그룹멘토링 확대(멘티 200명→300명)
 - (신설) ‘멘토링의 날’(지역 특화, 찾아가는 멘토링) 실시 (멘티 700명)
 - 지역 직능단체,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멘토링 운영

-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청년여성들이 경력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그룹멘토링 대상을 30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찾아가는 멘토링을 신설해 ‘멘티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 “청년여성이 우리사회 당당한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표 멘토들과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2017년 청년여성 멘토링 대표멘토 명단

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네” 색상·디자인 바꿔 교통사고 예방 기능 높이고 위·변조는 어렵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일(금)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 단장을 한다.
- 여러 차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전기차 번호판은 9(금)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 Electric Vehicle)가 배치됨.

-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하여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할 수 있다.

* '17년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자동차 14,861대, 수소자동차 128대

-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의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 또한,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 방식을 도입했다.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재귀반사식 필름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특히 재귀반사식 필름을 사용하면서 디자인한 위·변조 방지 태극 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대포차)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과 유럽 대륙을 운행할 때에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귀반사기능: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다시 반사되어 나오는 방식(빛의 입사 각도와 반사각도가 평행)으로 반사율이 높아 야간에 앞 차량의 번호판이 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뒤 차량 간 적정한 간격유지, 갓길 주차차 추돌사고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음

- 또한,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재귀반사식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 중인 일반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확대 및 디자인 변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 일반 자동차 번호판도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 및 범죄·사고예방기능을 갖추고, 자율차 등 다양한 미래형 자동차와 국민들의 다양한 번호판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소개

□ 번호판 시안의 특징 설명



- 색상 : 전기자동차를 규정하는 국제통용색상인 파란 색상 적용
- 전기자동차 픽토그램 : 그림문자(픽토그램)로 전기자동차임을 상징
- 태극문양과 국적표기 : 향후 중국, 유럽 등 대륙과의 교통연결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인증번호판임을 표시
- 홀로그램 : 미등록, 비보험 차량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변조방지기능(레이저 각인방식의 홀로그램)
- EV 심볼릭 : 국제표준 전기자동차 표기인 EV문자를 심볼릭화
- 바탕배면의 패턴 : 바탕에 전기차 픽토그램 또는 태극문양 이니셜 픽토그램을 이중구조로 패턴 화하여 위변조 방지 및 감식효과 증진
- 번호판 보조대 : 사고시 위험성을 줄이고 번호판 좌우여백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현행 돌출형 볼트체결방식을 피하고 보조가드식 체결방식을 새롭게 도입

참고 2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해외 사례

- 최근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
 - 전기차 확대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
 - 전기차임을 알 수 있도록 전기차 표시, E(또는 EV) 마크, 전기차상징 그림문자(팩토그램)를 함께 표시



(노르웨이)



(독일, 함부르크)



(독일, 하노버)



(미국, 메사추세츠주)

미래 해양인재 기른다... 제2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열려**- 초·중·고등학생 팀별 참가...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참가신청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은 우리 청소년들이 해양생물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심도 있게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2회 해양생물탐구대회'를 개최하며, 12일(월)부터 22일(목)까지 참가 접수를 받는다.

이번 대회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상진) 주관, 해양수산부·교육부 후원으로 초등부(4학년 이상)·중등부·고등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리며 지도교사 1인과 3~4명의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참가한다.

참가 신청 시 각 팀은 해양생물을 주제로 하는 탐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1차 서면심사를 진행하여 초등부·중등부·고등부에서 각 10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30개 팀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탐구활동을 진행하고,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10월에 발표대회를 갖는다.

미생물부터 해양포유류까지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이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탐구할 수 있으며, 참가한 학생들은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4개월 간의 탐구일지와 중간·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도교사가 아닌 학생이 주도하는 연구를 원칙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성, 타 부문과의 융합 가능성 등을 두루 평가하며 보고서, 탐구일지 등을 평가한 점수에 10월에 열리는 발표대회 점수를 합산하여 수상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 팀(부문별 각 1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최우수상(각 1팀)과 우수상(각 2팀) 수상 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상과 각각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장려상을 수상한 부문별 6팀에게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상을 수여하며, 수상 팀의 모든 지도교사에게는 지도교사 상이 별도로 주어진다.

해양수산부장관상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초·중·고 각 1팀	초·중·고 각 1팀	초·중·고 각 2팀	초·중·고 각 6팀
지도교사	지도교사	지도교사	지도교사
각 100만 원	각 50만 원	각 30만 원	-

본 대회에 참가하기 원하는 경우 12일(월)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제2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누리집'(http://study.mabik.re.kr/2017)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대회 운영 사무국(☎ 070-4610-3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작년 1회 대회에는 총 256개 팀이 참여하여 28개 팀이 수상하였으며, 작년 수상작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누리집(www.mabik.re.kr) 교육 참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두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해양생물 탐구대회가 바다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 해양인재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제2회

해양생물 탐구대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하는 제2회 해양생물 탐구대회는
자연과학, 인문, 예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시선으로 해양생물을 마주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사 장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유리움 및 교육동

참가 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생(3~4명) + 지도교사 1명

선발 규모 예선 심사로 초·중·고 각 10팀(총 30팀) 선발

접수 기간 2017. 6. 12.(월) ~ 6. 22.(목), 17:00까지

접수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study.matik.re.kr/2017

시상·상금

구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지역	초·중·고 각 1명 지도교사 각 1명			
상금	각 10만 원	각 50만 원	각 30만 원	-

문의처
Tel : 070-4610-3073 (운영사무관) | E-mail : matikstudy@matik.re.kr

주최 / 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후원 해양수산부 교육부

□ 목적

- 해양생물을 주제로 한 전국 단위 탐구대회 개최를 통한 해양생물 교육 주도 기관으로서의 자원관 역할 강화
- 전국 청소년들이 해양생물에 대하여 창의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미래 해양 인재 양성

□ 개요

- 대회명(안) : 제2회 전국 해양생물 탐구대회
- 기간 : 2017. 6 ~ 2017. 11
- 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생 팀 ※ 각 팀은 학생 3~4명과 지도교사 1명으로 구성
- 내용 : 해양생물을 주제로 자유탐구 수행 및 결과 발표
 - 예선(온라인 접수) : 초·중·고 각 10팀(총 30팀) 선발('17. 6월 중)
 - 탐구 수행 : 탐구일지 작성을 통한 탐구활동 모니터링 ('17. 6월~9월, 약 4개월)
 - 발표대회 : 초·중·고로 나누어 진행('17. 10. 21.(토) 예정)
- 주최/주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후원 : 해양수산부, 교육부

□ 운영방향

- 해양생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융합 탐구하고 발표함으로써 해양생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 제고
- 학생 주도의 탐구 수행으로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며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

□ 시상규모

구분	계	해양수산부장관상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 규모	60점	초·중·고 각 1팀 (총 3점)	초·중·고 각 1팀 (총 3점)	초·중·고 각 2팀 (총 6점)	초·중·고 각 6팀 (총 18점)
		지도교사 (총 3점)	지도교사 (총 3점)	지도교사 (총 6점)	지도교사 (총 18점)
		총 6점	총 6점	총 12점	총 36점
상금 규모	1,260만원	각 100만 원	각 50만 원	각 30만 원	-

□ 심사방법

○ 심사기준(안)

심사구분	심사대상	배점	심사기준
예선	· 탐구수행계획서	20	창의성(15), 탐구방법(5)
중간	· 탐구일지(학생) ※ 교사 탐구일지는 감점 요인으로 함	20	총실도(20)
	· 중간보고서	10	탐구방법(10)
발표	· 최종보고서	10	완성도(10)
	· 발표	40	협동성(15), 창의성(15), 자기주도성(10)
합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발표 고득점 순 (2순위) 최종보고서 고득점 순

※ 감점 : 각 단계별 감점 최대 5점 ※ 감점 대상은 팀원 및 교사 모두 해당
-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0.5/일), 개인별 탐구일지 작성 여부(-0.5/인)
발표대회 참석 여부(-1/인)